

교회 목표

신앙만 예배
친목인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나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이다
(빌립보서 1:21)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820 ©2002 충현교회

THE WEEKLY CHUNG 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달고 오묘한 그림자 / 5월 3일 금요일

지난 주일예배 메시지

그리스도의 보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백을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를 가운데 너희로 감동케 함을 삼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행 20:28)

5. 하나님의 약속의 확장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의 비극(삼상 13장 - 삼하 1장)

사울왕은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다. 다윗과 비교해 볼 때, 그는 의보다 뛰어난 사람이었다(삼상 9:2), 도덕적으로도 앞서 있었으며, 자기도 훌륭하게 양육되었다(요나단을 생각해 보라). 그는 왕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었다. 더군다나 그는 나라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사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는 인간이 가지는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무신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사울이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왕'이 되는 것이었다. 세상적인 승리가 그의 목표였다는 말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높이기 위해 혼란과 갈등을 겪어야 했다. 그는 분명히 인리와 신의를 두루 갖춘 훌륭한 왕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던 비극이었다.

사울이 처음부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거나 높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지 2년 뒤부터 자기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보다 무기를 더 신뢰했고, 왕의 지휘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지휘까지도 욕심을 내고 말았다(삼상 19:24). 그래서 그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또한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모든 군사를 굶주리게 만드는 어리석은 명령을 내렸다(삼상 14:24-25). 결국 이 무리한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짓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삼상 14:32-33).

왜 사울이 이렇게 변했는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모든 주권자 하나님께 있음을 간파했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몰두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야 하는 제사마저도 자신을 드러내는 일로 삼아버렸다(삼상 15:28-30).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특별히 지불하게 하셨다(삼상 15:28). 하지만 다윗을 생각하면 그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 다윗은 형제들보다 배에 내물을 지어 없었으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삼상 17:36-37), 인간의 무기한 장군 집보다도 하나님께 의지하였다(삼상 15:29-30). 다윗에게는 아무 것도 필요치 않았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의 관심사였다. 그가 죽을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다.

그리고 사울에게 있어서 발견되는 중요한 본질은 정경으로 그의 주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사랑 받는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고, 그를 죽이려고 애쓰기까지 했다(삼상 19:1).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 신약의 바리새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울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듯이, 바리새인들 역시 자신들의 기득권과 소위 의 문제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 말았다. 생각해 보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자기의 가부장적 자녀들을 통제해서였다.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이 왕이 되려면 다윗이 죽어야 하기 때문이었다(삼상 20:33). 그러나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었다.

결국 사울은 제사장을 죽이려고 명령함으로써 하나님께 완전히 반역하는 모습을 드러냈다(삼상 22:17-19). 그러나 그는 이러한 행동을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하나님을 반역하였다고 하나님을 미안함을 시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배반하는 일을 저지르면서도 여호와와 이름을 사용했다(삼상 23:19-22).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보존시키주었음에 대해 여호와께 이름을 의지하여 돌이켰으며(삼상 24:16-22). 그는 역시 자기를 넘기기 위한 속일수일 뿐이었다. 그는 다시 힘을 얻은 후 다시 다윗을 죽이려 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맡겨서 신실하게 자를 붙들었고, 귀신의 능력이 미치는 권위를 아무렇게도 알고 행하고 말았다(삼상 28:5-7).

사울에 대한 교훈은 그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행하며서 교회를 섬기는 사울과 유사한 사람들은 상당히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므로 각자 마음을 삼가 보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로 내 삶에서 열매 맺고 있는지 눈여겨 보라.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하나님은 제사를 받들지 않으시며 손종을 원하신다.

비율은 '예배'에서 온 정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삼가라'고 경고하고 있다(행 20:28). '삼가라'는 말은 파수꾼처럼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홍익한 이리', 즉 자기를 좇게 하려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다(행 20:29-31). 사울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왜곡시키려는 마귀의 도전에 계속되는 마귀가자이다. 초대교회 시절에 그리스도도의 보혈을 수직스럽게 여긴다면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을지, 오늘날에는 '~하리'와 강조하며 행위를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들이 존재한다.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은 교회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의 피로 지어졌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탁함을 받는 자들이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골 2:22).

19:1 - 성경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구속과 관계를 맺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골 3:24-25, 골 1:13-14, 벧 전 1:9).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구속은 그 어떤 행위나 종교적으로 얻을 수 없다는 뜻이다. 구속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그리스도의 보혈은 세상의 성공과 즐거움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세상의 것들을 연결짓는 지독한 어리석음에 빠지기도 한다.

의욕이 되었다 - 죄가 있으므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누구나 수긍하는 일이다. 마땅히 지고, 인간이 죄인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 진노가 모면되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인간이 의탁함을 받는 것이다(골 2:25, 5:9). 그리고 의탁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골 5:1).

죄가 용서받는다 - 우리의 죄가 사해지려면 17, 모든 불의에서 깨끗케 되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다(요일 1:9). 그의 보혈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근거가 되신다. 즉,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근거를 우리에게 보일대로 정하셨다.

거룩하게 하신다 - 그리스도인은 성화의 길을 걷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되며(13:12),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얻는다(요 17:17-19).

평화를 이룬다 -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리스도의 죽음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근거가 되었다(골 1:20).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요 14:27),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철폐, 새롭고 신 길을 열어놓았다(히 10:19-20).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히 4:16).

승리한다 - '그리스도의 보혈'은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가져다준다(골 2:11). 자신을 위해 피 흘리신 하나님의 이름과 이름을 믿는 자들이나 죄로부터의 승리,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승리, 그리고 세상으로부터의 승리를 소유하게 된다.

하늘나라 건축자들이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골 3:6)

모든 교회는 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대담히 귀중한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제 1 교육 위원회는 이 세상에 나타나서 가장 최초로 선례를 만드는 영이부부터 세상 물결에 동요되지 않는 중등부까지의 중요한 시기의 어린 성령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기관입니다. 이 시기는 아주 중요하므로, 이들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복음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그 믿음생활에서 떠나려 할 때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던 십자가의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복음의 기쁨이 되는 말씀으로 기억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그들 가슴에 하늘 나라를 열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무한한 간사자로서 그 나라를 온 우주에 전설하고 계시며 부활한 우리도 그 나라 건설에 동참하도록 영원으로 삼고자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나라 건축자 세대를 위하여 이 현상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만나도록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삼손이 '여호와와의 산에게 크게 간음'(사 14:6)되었던 것처럼, 행 17:3에 '바울이 성령 충만을 입었고' 5: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하신 말씀대로 성령충만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교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아이들이 교사를 신봉하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모든 분께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어라'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아이들 앞에 말씀과 십자가에 단신이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 건설사도 대가 드러나시니, 오직 그분의 영을 받으니가 버림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가 마땅히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로 8:26-27) 마음을 감찰하는 이가 성령의 생각이 아니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나니(로 8:26-27)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6-28)

이종성(집로, 제1교육위원장)

교역자 · 장로 · 안수집사 · 권사 기도회

금주 화요일(14일), 8시에서 9시40분까지, 갈릴리홀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결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곳에서 하는 기도예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것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대하 7:14-16).

하나님의 눈은 어디로 향하시고, 그분의 귀는 무엇을 들으시는가! 그분의 눈은 가난한 심령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통곡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러므로 마음을 결비하여 돌이키는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이다. 그러한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가 계신 곳까지 속속차리침 날아 올라가,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새차게 새차게 두드리며 파고든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는 마침내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 감사하리이다! 진실로 신자(信者)들은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을 소유한 자들이다. 신자들은 지상에서 천국을 잇는 가장 긴 기도의 끈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런 주, 화요일 저녁에는 충현의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게 된다. 올해로 두 번째 실시하는 이번 지도자 기도회 시간에는 ‘신자들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위임 목사님 말씀을 배우게 되며, 심령의 새로운 변화와 헌신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교회의 전반적인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될텐데, 주께서 피로 값 주신 성전에서 드려지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간구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교역자회, 당회]

- 오늘의 말씀처럼 충현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게 하소서.
- ‘위임목사님’이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 모든 교역자가 복음의 선포자가 되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사역자들이 되게 하소서.
- ‘당회’가 주의 뜻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로 채우소서.

[예배위원회]

- 주의 은혜가 말씀을 증거하시는 ‘위임목사님’에게 함께 하게 하소서.
-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 모든 ‘성찬식’과 ‘학습세례식’이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 ‘매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 모든 예배와 집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 ‘전 교인연합가족예배’를 통하여 충현의 모든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찬양위원회]

-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이 철저히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소서.
- 매주 ‘금요일에 드리는 찬양’이 더욱 영적일게 하소서.

[교육위원회]

- 주일학교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체현하게 하소서.
- 교역자와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만을 전하게 하소서.
- 전 주일학교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체현하게 하소서.

[전도위원회]

- ‘전도대 파송’을 통하여 민족 복음화에 힘쓰게 하소서.
- 매주 진행되는 ‘교회주변전도’를 통해서 지

역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직능 전도회를 통하여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게 하소서.
- ‘충현전도대 훈련’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성령에 따라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선교위원회]

- ‘2002년도 단기선교준비’가 은혜 중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 단기선교를 기획하고 준비하며 실행하는 ‘사역자들’을 주의 권능과 지혜로 인도하소서.
- 모든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선교에 동참함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소서.
- ‘기도하며 후원’하는 성도가 많아지게 하소서.
- ‘충현선교훈련원’ (CMTC)을 통한 모든 훈련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 단기선교를 통한 ‘구원의 역사’와 모든 선교사들을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 선교위원회가 행정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봉사위원회]

- 교회 각 분야에 봉사한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허락해 주소서.
-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만을 전하게 하소서.

[인사위원회]

- 교회가 필요한 일꾼들을 ‘바르게 선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 직분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효과적으로 쓰임 받게 하소서.

[기획위원회]

- 교회의 모든 일들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좇아 행하게 하소서.
-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기도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도록 인도하소서.

[교구위원회]

- ‘대심방’을 통해 충현의 모든 가정들이 복음

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소서.

- ‘교구영성훈련’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함으로 교구 발전의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 ‘단기 선교’를 위해 모든 교구원들이 믿음으로 준비하며 협력할 수 있게 하소서.
- ‘태신자 초청집회’가 기도와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놀라운 결실이 맺히게 하소서.
- 각 교구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일꾼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소서.

[행정 · 재정 · 건축 · 감사 · 법인운영위원회]

- 교회의 모든 업무에 있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교회들 세워가게 하소서.
-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게 하소서.
- [교육훈련 연구원 · 성경연구원]
- 6월에 실시될 ‘청기지훈련’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 매주 실시되는 ‘구역장훈련’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소서.
- ‘주간성경공부’를 통해서 모든 성도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하소서.
- ‘주일학교교사와 찬양대원의 양성’을 통하여 주의 교회가 날마다 세워져 가게 하소서.

[장학위원회]

-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천국 일꾼을 선발’하도록 지혜를 주소서.
- 많은 성도들이 ‘천국일꾼을 양성’하는 일에 협력하게 하소서.

[제직회 · 집사회 · 권사회]

- 모든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소서.
- 복음의 전리로 무장된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게 하소서.
- 모임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되어 교회를 섬기는 모임이 되게 하소서.
-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영적인 모임이 되게 하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행 1:6-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정헌민 목사

제자들의 기대

부름받은 제자들에게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야망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조국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민족적인 야망에 관한 것이었고 둘째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었을 때에 그들이 높은 지위를 차지하여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개인적인 야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팔레스틴에서 온갖 기적과 권능을 행하셨을 때에 모든 기대를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이와같은 이들의 야망은 복음서 여러 곳에서도 증거되고 있습니다(마8:1, 마20:20-21, 막9:33-37~). 특히 막10:37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오른쪽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요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할 때는 주님의 공생애 기간 중 어떤 때였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때가 아니었습니까(행11:1). 이제 마침이 지나면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지 않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주님은 공생애 3년간 수많은 이적과 권능으로 자신의 메시아 되심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동참해야 할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하며 세상의 영광만 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의 실망

몇 십일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메시아가 로마를 물리치고 그들의 왕이 되기를 바라며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왕으로 등극한 것이 아니라 죄수로 비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왕으로 알았는데 로마의 군병에 의해서 짐승처럼 끌려나갔고, 그의 머리에는鞭策(박치기)의 왕관 대신에 가관이 씌워져 있었으며 그 손에는 천하를 호령하는 홀 대신에 갈대야 쥐여져 있었고, 높은 보좌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고문과 땅을 뜯으며 산하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던 그날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야망이 산산히 부서지는 날이었고, 3년 동안 흘린 모든 땀과 수고와 물거품으로 사라져버린, 기억조차 하기 싫은 가장 비참한 날이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상실한 패잔병이 되어 그들은 염마(염마)로, 각각 자신의 고향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제자들의 변하지 않은 관심

그런데 흩어진 제자들 사이에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그들은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는 그때까지도 해결하지 못했던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6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묻고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이니가 하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그 권능으로 죽은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살려내실 날이 이제야 이른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도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엠마오에서 이곳까지 달려왔다고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소망은 어떤 소망이었을까요? 주님의 소망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깨어져버린 우주의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망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셨는데 제자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여전히 유대민족의 회복, 그 땅의 부귀영화를 꿈꾸고 있으니 답답하고 한심하기조차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7절에서 다음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주님의 이 말씀은 “너희 유대민족의 독립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독립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염마해야 할 자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그들이 끊임

없이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문제이며,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땅 끝의 버려진 한 영혼에게 있었으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부활의 증인이 되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참 제자의 소망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직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우리의 소망으로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명령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될 그때에 우리는 민족주의자의 겉집을 벗어버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행2장 이전의 제자들처럼, 내 민족, 내 가정, 내 직장 등 나를 살피는 중심에 두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인 육체와 함께 그 성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아 버린 자들이며(골 5:24),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자들이며(고후 5:17),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는 자들이며(골 1:24),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골 2:20).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 가졌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소망은 평생에 가져야 할 소망이며, 영원토록 가져야 할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 지금도 가지고 계시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성령에 따라 일하신 예수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이 모든 소망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8절이 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이미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주님께 임하셨습니다(마 3:16).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고 그곳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가서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으며(눅 4:14), 성령으로 기뻐하셨으며(눅 10:21),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가르치셨으며(행 1:2).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요 20:22). 이와같이 주님의 이 땅의 사역은 성령과 함께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은 주님의 사역이 성령으로 행하신 일이었음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으며, 귀로 들었으며, 가슴으로 느꼈던 증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이 성령으로 행하신 일이었기에 제자들도 그들의 성령에 성령께서 임하시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따라 일하는 제자

그렇습니다. 행2장에서 주님의 약속에 따라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이전에 가졌던 욕심이 없어지고 하는 마음이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들의 목숨까지 바쳤으며, 부활의 참된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행2장의 예루살렘 교회와 이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으며, 내 민족 이스라엘만을 주장한 자들이 원수로 생각하던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예수를 위하여 순교할 수 있었으며,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그들의 가정과 교회를 피하하던 로마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을 자기 중심의 사람에게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충현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에 만방을 행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도록 전혀 기도해 헌신하기를 바랍니다(행 1:14). 그리하여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총현교회 2002년도 단기선교 전체방향

(1) 지역 선정 원칙

① 총현교회는 2002년도 단기선교에 있어서 '개척자적인 정신'과 '독립적인 선교전략'을 가지고,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미전도 족속'(unreachable peoples)에게 접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므로 지역선정에 있어서 제외지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한국인 선교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 한국인 선교사가 사역하기로 되어있는 지역
- 한인교회에 있는 지역
- 개신교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지역

이들 지역은 이미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지역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지역에서 사역하게 되면 기존의 선교사회와 연합하여 사역하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현지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어디까지 접근해 가야하며,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할 것인가를 현지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총현교회가 처음으로 파송한 지역이라서 제대로 분석을 하지 못하고 돌아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지역에 주께서 주신 땅이라고 확신한다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돌아 오라. 계속해서 총현의 단기선교팀이 2차, 3차로 그 지역에 파송될 것이다. 또는 그곳에서 선교의 씨이 돋으면 그들에게 우리가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돌아 오라. 총현의 다음 단기선교팀이 신속하게 파송될 것이며, 교회는 6개월, 또는 1년 이상의 단기선교사를 파송할 것이다.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영혼을 기리며 접근해 갈 때, 비로소 우리는 총현교회가 추구하는 개척자적인 정신으로 하

② 단기선교팀의 지역선정원칙은 사역계획과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진행분과에서도 다루게 될 것이지만, 사역과 그 결과에 대한 의식과 부담감 때문에 총현교회가 추구하는 개척자적인 정신과 독립적인 선교전략의 수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사역의 결과를 의식해서 기존의 선교사와 연결하여 사역하거나 현지교회와 연합하여 사역하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현지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어디까지 접근해 가야하며,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할 것인가를 현지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총현교회가 처음으로 파송한 지역이라서 제대로 분석을 하지 못하고 돌아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지역에 주께서 주신 땅이라고 확신한다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돌아 오라. 계속해서 총현의 단기선교팀이 2차, 3차로 그 지역에 파송될 것이다. 또는 그곳에서 선교의 씨이 돋으면 그들에게 우리가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돌아 오라. 총현의 다음 단기선교팀이 신속하게 파송될 것이며, 교회는 6개월, 또는 1년 이상의 단기선교사를 파송할 것이다.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영혼을 기리며 접근해 갈 때, 비로소 우리는 총현교회가 추구하는 개척자적인 정신으로 하

나눔께서 지명하신 땅을 위해 선교전략을 더욱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③ 모든 단기선교팀은 순수하게 복음만을 가지고 스스로 접근해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모든 단기선교팀은 준비기간 동안 지역에 대한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라. 현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과 접촉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정보를 부탁해서 수집하라. 그 외 기타 관계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등, 다양한 각도로 접근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 (선교위원회에서도 가능한대로 수집된 정보를 공급할 계획이다). 물론 우리는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칠 것이며, 누구와도 연합사역을 시도하거나 그들로부터 인도받는 일은 가끔적 피해야 할 것이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개하여 선교사를 파송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정보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도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습더니 이는 남의 뒤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골 1:20).

2002 총현단기선교

단기선교, 꼭 알아야 할 일들③

이제는 '나라'에서 '종족'으로

'김치'는 많은 한국인들이 즐기는 음식이다. '생선 구이'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두 음식은 각각의 독특한 맛으로 우리 한국인에게 사랑을 받지만, 결코 '함께'는 사랑받지 못한다. 생선 구이 한 조각을 먹은 후 바로 김치 한 조각을 먹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의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 그 비린 맛을 어찌 잊을 수 있겠나!

우리는 단일민족이어서 다민족국가의 아픔을 알지 못한다. 인종갈등이나 종족갈등에 대한 기사를 읽거나 읽을 때에도 그저 강간된 불구경하듯 할 때가 많다. 직접 우리 피부에 닿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더욱 '선교'를 나라' 중심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야할 미전도종족의 정의가 '아직 자립적으로 교회가 개척되지 않거나, 교회가 있어도 자립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은 곳'이라면 이제 나라 중심의 선교적 사고를 수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 각 나라에는 이러한 조건을 갖춘 민족이 하나 이상씩은 거의 존재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종족 단위에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한 나라 안에서 다른 문화와 언어 등을 갖고 살아가는 '종족'으로 선교적 사고를 보다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세상의 거의 모든 나라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나름대로 자립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결국 '미전도된 나라'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나라 안의 교회가, 그 나라 안의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모든 종족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기는 매우 어렵다. 한 상에 김치와 생선구이는 함께 있을 수 있지만 이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처럼, 한 나라 안에 여러 종족이 존재하지만 각자의 특수성 때문에 이들을 결코 하나가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우리는 이제 '나라'의 개념보다는 '종족'의 개념으로 선교의 대상을 바꾸어야 한다. 스리랑카는 나라보다는 스리랑카의 '타밀족' 혹은 '실론족'에 복음을 전해야 하고, 몰도바는 나라보다는 몰도바의 '러시아인' 혹은 '우크라이나인', 불가리아인, 집시족, 가가우즈인, 유태인, 벨루로시인' 중 한 종족을 대상으로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해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종족을 대상으로 할 때, 우리는 이들만의 문화와 언어와 종교와 특수성을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므로, 이들 종족을 위해 정말 필요한 부분을 놓고 기도할 수 있고 더욱 효과적인 전도전략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상에 올라있는 생선의 비린 맛과 김치의 상큼한 맛은 어울릴 수 없으니, 이 둘을 깨끗이 어울리게 하는 음식이 있다고 한 것이 바로 '밥'이다. 생선 한 조각과 밥 한 숟가락. 그 후 김치 한 숟가락 밥 한 숟가락! 생선과 김치가 조화가 되는 순간이다. 이 밥은 우리의 주식이면서 모든 반찬을 어울리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는 세상의 밥이다. 그들의 나라와 풍을 수 없는 그들의 종족들의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인정하여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 28:19상)

성경(말씀)을 인(인)

인간의 제1되는 목적 ② -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

소로이 문답 제 1문에서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인생의 제1되는 목적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함께 그를 즐거워 하는 것이 거론되고 있을까? 우리가 확신하건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 드리는 자들은 그를 가장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시편 73편 25, 26절에서 기자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본성이시라"고 노래하고 있다. 하나님을 통하여 않고 인생은 결단코 만족와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고백이다. 세상사람들은 돈으로 즐거워하고, 권세를 잡으므로 즐거워하고, 자식으로 즐거워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즐거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 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통하여 즐거워 할 수 있는가? 가장 기본적인 면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그 흘려 주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의 자녀가 된 일이다. 불변하고 못난 인생이 성령님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의 자녀들을 또한 주님에게 내리주신 계명들을 사랑으로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즐거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 앞에는 기쁨이 찬미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니" (시 16:11)라고 노래한 다윗처럼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 할 수 있다.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잊지말자. 할렐루야! 다음주에 계속 (이성목 목사)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때라다

양 기 수 (안수집사, 대학부 부장)

아들이 성장하여 대학에 들어가고, 집을 떠나 가족사에서 생활하면서 그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 살아가지는 지 항상 걱정되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연약한 믿을 때문일까? 그의 삶을 인정해 주지 못하는 부모의 욕심 때문일까? 이것은 나쁜만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모든 부모의 심정이었다.

오월이 되면서 오래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많이 생각난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새벽기도를 다니셨다. 나는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할아버지를 따라 새벽기도회를 갔었다. 저급 생각해도 교회까지가는 제법 먼 거리였는데도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찬송하시면서 다니셨다. 어린 내가 듣기에도 할아버지가 부르시던 찬송가는 박자와 음정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았는데도 할아버지는 열심히 부르시며 걸으셨다.

일평생 세상 영광을 쫓아 사셨던 할아버지께서는 우리 가정에 환난이 있을 후 뒤늦게 예수님을 알게 되셨고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삶에서 신앙생활은 더욱 간절하셨다. 매일 새벽 할아버지는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나는 모르다. 하지만 신앙의 삶을 보았을 때는 분명했다. 할아버지는 주일을 지키는 신앙을 내게 유산으로 남기주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는가? 생각하면 두려움이 앞선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성공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할아버지가 보여주셨던 것처럼 새벽기도 생활을 보여주지도 못한 것 같고, 예수님의 구원을 배워주었으나 얼마만큼 그의 삶에 각인되었는지 모르겠고, 생장할수록 모든 것이 부족하기만 하다. 자녀의 눈에 나는 임의로만 말하는 행함이 없는 죽은 신앙을 가진 아버지로 비치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봉사한다는 명분으로 일하는 것에 더 바빴고, 사랑을 나누다며 친구를 더 귀중히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교회에 염려한다면 모으어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남의 흉을 보면서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이겨낼 수 없는 죄의임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불같이 주세요. 앞서가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해 주세요. 승리하게 해 주세요. 기도한다.

나의 자랑 예수님

이 제 린 (대학부 2학년)



저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집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있어서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허울에 지나지 않았습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으며 인격적으로 그분을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김아무개'와 같이 어떤 존재에 붙여진 이름일 뿐이었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몸매 배인 취미생활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는 것은 세번이었습다.

첫째는 하고 싶은 일, 둘째는 해야 하는 일, 그리고 셋째가 예배하는 일이었습다. 저의 생각 속에서의 예수님은 저를 깊숙히도 허를 찌른 곳에 의외롭게 자리잡고 있을 뿐이었습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이었을까요? 대학부에 올라오면서 이대로 무의미하게 교회에 다니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습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나의 동기들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며 이제껏 내가 헛살았음을 후회했습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었는데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불쌍학생도 아니었고 꽤 착하게 살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 스스로를 '좋은 아이'로 평가했습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니,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하고싶지도 않았습다. 그러나 저 역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선 죄의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마유에저는 그냥 감동해 버렸습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교만스런 저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습다.

젊은데, 일찍부터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죄를 20년간만 짓게 하고도 남은 50여년 간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도록 깨달음을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에게 세상에 속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저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학습과 세계 사이에서



이 정 린 (대학부 1학년)

4월28일 교회에서 학습세례식이 있는 날이었다. 나 역시 세례를 받는 대학부 학생중 한 사람이었다. 고등학교 때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친구를 만나러, 또는 예배드리고 놀러갈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녔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습을 받은 것도 '예복찬양대'에 있는 친구가 받아서 '나도 따라해야지'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랬던 나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었다. 변화의 계기는 대학부였다. 고등학교 때는 날 교회로 인도했던 친구 한 명에 의지해서 다녔었는데 대학부에 올라오면 서부터 많은 동기들과 선배님들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나에게 구원의 확신과 십자가라는 문제가 남아있었다. 서서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님과 주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학습을 받은 몇 년 후에서야 세례를 받게 되었다. 세례교육과 문답에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다. 내가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였다. 세례를 받으신 날 내가 주님의 자녀 됨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였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 받는 것인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주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하의 한마디가 '내가 정말 사랑 받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해주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를 계속 주님처럼 변화 시키어 할 것이고 그분의 자녀로서 열심히 살아야 할 것이다.

늘 · 라 · 우 · 신 · 주 · 의 · 이 · 름

평강의 왕(사 9:6)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모습 중의 하나가 평강이다. 참 성도는 위협의 순간, 죽음의 순간에도 평안을 누린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주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마 14:27).

예수님은 평강의 사람이었다. 귀신들린 자들이 나타났을 때에도, 오천명이 넘는 히기진 무리를 뒀을 때에도, 군병들이 잡으려 왔을 때에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사람들이 조롱할 때에도 평강로우셨다. 그 모든 순간에 평강로우실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으며 '가장 큰 의', 즉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을 앞두고 계셨기 때문이다.

이 '가장 큰 의'는 우리에게도 평안을 준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 '가장 큰 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보혈로 구원을 얻었고 그것을 믿는다. 이 믿음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한다. 지금 어떤 곤난이 있을지라도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평화를 가져오셨다(롬 5:11). 하나님과 인간의 역사는 조화에서 시작되었으나 죄가 들어와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켰다. 하나님은 인간을 몸서 사랑하셨고 인간은 죄로써도 하나님을 의뢰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었다. 하나님과 인간은 화평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제거해야 했다. 그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와 허물을 몸소 담당하셨다. 십자가는 죄인들과 하나님의 위대한 만남의 장소이다.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고 죄의 벽이 무너졌다.

그리고 인간은 다른 인간과도 분리되었다. 예수님께서 인간 사이의 분열까지도 해결하신다. 인간 사이의 분열도 결국 죄에서 오는 것이다. 야담과 허와가 신앙과를 믿음으로 죄를 알게 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죄성이 없어지면 인간 사이의 분열도 없어진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로 가르치신 말씀이다. "네 이웃에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9). 이보다 더 인간을 화평케 하는 말씀이 어디 있었는가?

우리는 그의 오심을 기다린다. 우리는 그로 인해 평화를 누리며 우리 주변의 고통 하는 세상과 그 기도를 나눈다. 그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 수고하고 그를 기 대하는 것이야말로 평화를 누리는 가장 큰 방법이다. 그는 평강의 왕이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사] - 교회의 형성과 발전(4)

청일 전쟁과 교회발전 - 민중계층의 입교

기독교가 한국에서 본격적인 선교를 개시한 19세기 말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있어 혼란의 시기였다. 당시의 정부와 집권세력은 민중으로부터 근대화를 요구하는 내적인 압력을 받고 있었으나, 이를 창조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봉건주의적 권위를 내세우며 무력으로 그들을 탄압하여 그 한계를 스스로 나타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계속 일어나는 민란들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였고 1894년의 동학 농민혁명 등 정부의 한계를 드러낸 결정적 사건이었다. 이와 함께 일본·러시아·청국 등 주변의 세력들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방어태세를 갖추지 못하여 오히려 한반도는 이들 침략세력들의 전장이 되고 말았으니 1894~5년의 청일전쟁, 1904~5년의 노일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그것이다. 이같은 전쟁으로 인해 우리 민족은 인명과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어야 했고 국토가 유린당하는 수난을 겪어야 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같은 민족의 수난기에 급격한 성장을 이루게 된다. 미국 장로교와 감리회에 보고된 교세현황에 따르면 1895년~1897년 사이에 세례교인들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노일전쟁이 일어났던 1904~1905년 이후에도 세례교인이 늘어났다. 전쟁 중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확실한 보호구역으로 교회당과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병원이나 학교가 이용되었고 바로 이 점이 교회 성장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 것이다. 교인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 특히 민중계층은 교회를 통해 보호받았던 것이요 이것이 전쟁 후에도 계속 교회를 찾아 나온 동기가 된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생명과 재산의 보호 기능을 한 것만이 교인 증가의 요인이라 할 수는 없다. 전쟁을 통해 교인들의 신앙이 확고해졌다는 사실에서 또 다른 성장의 요인을 찾아 볼 수 있다. 교회에 모여 있는 교인들, 지방으로 피신한 교인들든 전쟁이란 극한 상황 속에서 절대자에게 의존하는 신앙이 깊어졌으며 그것이 전쟁 후 교회 발전의 기틀이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교인들의 지방 피난으로 종래 도시 중심으로 전개되던 선교가 지방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이루어졌다. 특히 평양 출신 교인들이 청일전쟁 중에 황해도·평안도 지역으로 피난하면서 그 광범위한 지역에 교회가 설립되었다.

다시 말하면 전쟁 중에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려는 민중계층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또 피난한 교인들에 의해 신앙의 지방 확산이 이루어져 지방 교회 설립이 본격화되었다는 것이 교회 급성장의 요인의 하나였던 것이다. 외세의 침략으로 인한 전쟁의 수용들이 속에서 교회는 민족의 피난처가 되었고 그것이 교회 발전의 1차 원인이 되었다. 또한 수난 중에 견고해진 초기 교인들의 신앙, 그들의 지방 전도가 또 다른 교회 발전의 원인이 되었다.

다움주일 찬송

176장 영화로신 주 성령

이 찬송은 앤드루 리드 목사가 1818년 성령강제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담아 "성령님께 대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작사하였으며, 루이스 모로 고트실리크가 1854년 그의 나이 25살에 "마지막 소망"이라는 피아노곡으로 작곡하여 알려지게 되었다.

- 1절: 영화로신 주 성령 나의 맘에 비추사 어둠 몰아내고 밝게 하여 줍소서
- 2절: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맘을 괴롭힌 죄를 용서 하여 줍소서
- 3절: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죄를 잊고 기쁜 맘을 줍소서
- 4절: 신실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된 일 고치고 홀로 주만 합소사 아멘.

뛰어난 실력의 피아니스트였던 작곡자는 이 곡을 부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따뜻한 성령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3박자 곡에 온온한 멜로디를 사용하여 작곡하였다. 끝에서 3번씩 마디 "마침" 하여, "주소사" 부분의 7도 도약도 결코 과격하지 않도록 온화하게 약박자로 처리하여야 한다.

4마디(12박자, 7음절)를 한 소(프레이즈)에 부르고 2마디는 점점 켜지게 그리고 4번째 마디는 자연스럽게 작아지게(트레센드) 부르면 가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또렷이 들리게 된다.

마음 속 깊은 곳까지 통찰하는 성령께 깊은 곳에서부터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면서 불러 보라. (한영환목사)

+ 양요일

1교구 이해철 성도(남39세) 위암, 간암 말기입니다. 환우와 가족들이 예수님을 알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것과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6교구 안역순 성도(남74세) 뇌졸중으로 의식이 없고 위중한 상태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환우와 가족들이 평안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2교구 이귀진 집사(여67세)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해 지난 6일 양 무릎과 왼쪽 팔목을 수술했습니다. 수술 부위와 체력이 빨리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약학당

성만찬의 의미

10교구 상계 3, 4구역 / 구역장 정순화, 정영자 집사



성만찬에 대한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진실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성만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의미가 적용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만큼 성만찬의 의미를 알고 삶 속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상계 3, 4구역은 성만찬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성만찬과 삶 속의 문제들을 연결시키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얼마 전 딸과 딸과 교회에 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처음으로 구역예배에 참석한 성도가 있어 성만찬을 세례하고 연결시켜 이야기를 나누었다.

먼저 구역원들은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인식해야 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죽을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가? 아무도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했다. 어떻게 한 번도 대답하는 이가 없던 말인가?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우리는 연약했다. 상상조차도 끔찍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성만찬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직접적으로 우리의 자식을 놓고 생각해 보니 확실하게 와 닿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하냐? 성만찬이란 얼마나 감격스런 사랑의 현장인가? 구역원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할 때 의무감이나 억지로 해 나간 때가 많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이제 성만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감동으로 충성하고자 서로 충고했다.

구역예배에 처음 나온 성도는 성경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아 주일이 기다려지며 주일마다 말씀으로 감동 받아 듣고 싶어진다고 고백했고 바로 얼마 전에 세례 받은 한 성도는 처음 나온 성도에게 세례의 감동에 대해 이야기 해 주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니 그 토요일도 외출을 삼가고 주일을 삼가며 준비하게 되었다고 했다. 초신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듣고 집사님과 권사님들도 도전을 받아 토요일 5시 이후로는 집에서 주일을 준비하고자 서로 권유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상계 3, 4구역 구역원 모두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은 첫사랑을 잃지 않도록 성만찬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기를 바란다. (권오섭 기자)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김 유진' 성도를 소개합니다



영화감상을 즐기는 영영강사입니다. 예전에도 열심없이 교회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 중간에 쉬었다가 남작 친구를 만나면서 다시 나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해 주셨음을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매 주일 새가족부에서 양육받을 때 선생님의 세밀한 가르침과 매사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이 고맙고 기적이 일어나 납니다. 앞으로 열심히 교회 다니며 믿음 생활 잘 하겠습니다. (한숙정 (새가족부 통신원))

윤정덕 권사(여77세) 낙상하여 어깨뼈에 이상이 생겨 침실을 넣는 수술을 했는데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술 부위와 체력이 빨리 회복되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6교구 이인숙 권사(여68세) 심장 협심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데 매우 힘들어 합니다. 치료 과정과 잘 견딜 것과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박영숙 집사(여70세) 중병으로 치료 중입니다.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눈멀게 만드는 말들

김성겸 (전도사, 중동2부부지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자주 쓰는 말이 있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죄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표현은 더 이상 구체적이지 못하고 회피하여 관념 속으로 함몰되어 버렸다. 좋은 말도 너무 많이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남발하는 상투적인 말이 되듯 “주님,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라는 표현은 어이없게도 이런 상투적인 말이 되어버린 것이다. 나의 회개기도는 너무나 뻔한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말로 회미하게 얼버무리며 지나가 버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나 자신은 그저 이런 언어 속에 묻혀버린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정말 내가 뭘 어떻게 죄 지었는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내 입으로 고백함이 없이 “죄인입니다”하는 단 한마디로 넘겨버리는 것이 어찌 회개한 말인가? 인간의 심리라는 것이 이렇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기 싫어하고 심지어 말도 하지 않으려 한다. 이것은 사실상 그 죄를 고백하기 싫어서 그냥 회미하게 관념적인 미사여구를 통해 넘겨버리려는 나의 추악한 수작이다. 심지어 공공연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 하며 “저는 잘 못합니다. 제가 못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남발하는 것도 회개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그저 나의 은근한 죄책감을 해소하려는 수작일 뿐이다. 즉 자신의 죄성에 대한 죄책감만 가지고 있다가 가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발표하는 “내가 죄인이지요”라는 상습적 표현을 통해 죄책감을 약간 해소하며 자기 만족을 얻을 뿐이다. 죄책감이 해소되고 나면 나는 죄의 실체와 진정한 변화의 필요성으로부터 눈길을 멀리 돌리려 한다.

나에게는 이런 신앙적 혹은 종교적 상습현인들이 독소와 같이 존재한다. “복음”, “은혜”, “죄” 등등 수 없이 이야기하는 말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과는 상관 없이 회미하게 반복 언급될 뿐이다. 나의 이러한 포경언어들이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독처럼 퍼져나감에 십각하게 격정해 본다. 진정으로 작나하게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아래 벌거벗겨지는 나의 존재는 나의 언어마저도 분명히 벌거벗길 것이다. 그때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주문처럼 외회지는 표현이 아닌 진정한 고백의 언어로 선조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아이들에게 교훈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위선이다.

임마누엘 가정

강민철 (전도사, 중동3부부지도)

방황하는 10대, 고부간의 갈등, 금주하는 이혼율, 위기의 가정! 요즘 매스컴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가정의 위기에 관한 내용이다.

높은 흡연율, 학교 내 왕따의 문제, 인터넷 확산에 따른 유해 사이트의 범람으로 인한 중독 현상 등 현대의 청소년들은 여러가지 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또한 하루에 세 쌍이 결혼하고 한 쌍이 이혼한다는 충격적인 보도는 현대 가정의 위기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정을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 2:25)

이처럼 가족의 구성원인 부부는 서로 다른 몸이 아닌 한 몸인 것입니다. 가정의 하나됨!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기초였던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화평하였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깨지고 말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화평한 가정을 불신과 불화의 가정으로 만들었으니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화목한 가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울면서 따라 오는 백성과 여자들을 보시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눅 23:28)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공부만 잘하는 1등 아이가 아닌 주님의 교양과 온케로 양육할 때(렐 6:4) 아이들은 예수님 안에서 온고 바르게 자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녀들은 자신들의 부모님을 따르며 존경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가 범사에 남편에게 순종하며 또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였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할 때(렐 5:22-25) 그 가정은 사단이 시험하지 못하며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는 편지

차 병석 (소년부 믿음 9반)

하나님!

아침 일찍 일어나 교회 가는 길은 너무 멀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 오는 길은 가까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부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는 믿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희망과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은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사회생활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4석구입니다. 하지만 아빠는 의복에 나아서 입실 정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엄마, 형하고만 같이 삽니다. 저희는 비록 아빠가 멀리 계시도 있지만 웃고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의복에서 교회를 다니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 속으로는 간절히 기도하고 깨달게요. 하나님께서 아빠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할머니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세요. 지금 할머니는 양모도 없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길을 따라보게 해 주세요.



【믿음의 학교에서】

나를 여호와인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출 6:29). 그러나 모세는 불평을 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요이나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이까”(출 6:30)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와 바로 앞에서 신처럼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출 7:1). 여기서 신(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바로에 대한 모세의 우월성을 한마디로 압축한 말씀입니다. 나약한 모세를 강하게 하시고, 모세를 그 어떤 권력자보다 탁월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출 7:3).

하나님은 그를 믿고 섬기는 자들뿐 아니라,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퍼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매”(출 7:5).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온 땅에 알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바로를 강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바로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굴종하여 여정 사람을 굴종히 여기고 강하게 하시고 하는 사람은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도 구약사회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는 지옥에 갑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제왕을 더하시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제왕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퍼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출 7:4-5). 바로가 듣지 않아서 그를 혼내시려고 제왕을 더 하시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는 관성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관성 있으신 부분은 어디입니까? 내 군대, 내 백성에게 관성이 있으십니다(출 7:4). 이들에게 해방과, 구원을 주시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려고 제왕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말입니다. 애굽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도 우리도 말입니다. 창세기가 쓰여진 이유도, 출애굽기가 쓰여진 이유도, 그 외 모든 성경이 쓰여진 이유가 여호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려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식이 아닌 경험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와 명하신 대로 행하여”(출 7:6-10). 초반에 모세의 주저하던 모습(출 6:30)과는 현저하게 상반된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자제는 하나님 말씀의 폭력적인 신뢰와 순종입니다(삼상 15:22, 잠 3:5, 히 11:8).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도구가 됨을 볼 수 있으니까요. (권함임 기자)

